

# 역대 최대 실적... 연이은 흥행... 3N 매출 7조시대 '기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넥슨, 모바일게임 매출 고공행진  
넷마블, 글로벌시장 견조한 실적  
엔씨소프트 '리니지' 효자역할 특독



넥슨 '바람의나라 연' 이미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깊어진 가운데, 언택트(비대면) 콘텐츠가 부상하면서 게임사들이 하반기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게임 '빅3'로 불리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이 연이어서 호실적을 거두며 매출 7조원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각각 사상 첫 연 매출 3조원·2조원 달성이 유력시되며, 넷마블은 무난히 연 매출 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엔씨소프트, '리니지 형제' 덕에 실적 고공행진... '2조 클럽' 눈앞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넥슨을 시작으로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연이어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한 엔씨소프트는 올 3·4분기 연결 기준 매출 5852억원, 영업이익 217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7%, 69%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엔씨소프트의 효자 IP '리니지' 형제가 모바일 게임 매출을 이끌었다. 3·4분기 모바일 게임 매출은 3896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리니지M'은 2452억원, '리니지2M'은 1445억원을 달성했다. 리니지M·리니지2M 등 '리니지 형제'는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최고매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3·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의 3분기 매출은 2018년 1분기 이후 최고 기록"이라며 "리니지2M' 또한 4·4분기 말 매출 안정화로 안정적인 캐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대표 이미지.

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 매출은 한국 4771억원, 북미·유럽 274억원, 일본 139억원, 대만 79억원이다. 로열티 매출은 588억원이다.

이로 인해 엔씨소프트의 연매출 '2조 클럽'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2017년부터 3년째 매출 1조7000억원대에 머물며 2조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넥슨·넷마블도 모바일 게임 타고 '휠'... 3N 연매출 7조 시대 '활짝'

앞서 실적을 발표한 넥슨 또한 연매출 3조원, 넷마블 연매출 2조원을 넘기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



엔씨소프트 '리니지2M' 대표 이미지.

임 3N 연매출 7조원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우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넥슨은 '바람의나라: 연', 'V4',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 모바일 게임의 연이은 흥행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넥슨은 연결 기준, 올 3·4분기 매출 8873억원(794억엔, 이하 분기 기준환율 100엔당 1117.3원)과 영업이익 3085억원(276억 엔)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13% 성장할 수 있다. 특히 3·4분기 모바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인 3695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3·4분기 전체

출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넷마블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로 인해 연 매출 2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지난 3·4분기 연결기준 매출 6423억원, 영업이익 87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코로나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N은 신작 발표에도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PC와 모바일, 콘솔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 플레이를 통해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나선다.

넷마블은 향후 모바일뿐 아니라 PC, 콘솔로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2022년 이후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작은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해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보유한 AI 기술을 게임과 금융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르노삼성 뉴 QM6

/양성운 기자



르노삼성 뉴 QM6 실내 모습.

## '가성비 甲' 감각적 디자인·부드러운 주행감



### 르노삼성 '뉴 QM6'

르노삼성車 핵심 모델 '급부상' 전면 그릴 변화... 고급스러움 더해 실내공간 편의성 강화... 안락함 ↑

'QM6'는 2016년 국내 자동차 시장에 출시와 함께 뛰어난 가성비와 감각적 디자인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내 중형 SUV 시장에 가솔린 SUV를 선보이며 'SUV = 디젤'이라는 틀을 깨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 결과 출시 후 지금까지 16만대 이상 판매되며 르노삼성자동차의 핵심 모델로 급부상했다. 최근에는 연식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뉴 QM6'를 내놨다. 연식 변경이지만 국내 소비자들만을 위해 전면 그릴 디자인을 바꾸는 등 더욱 감각적인 외관으로 돌아왔다.

새롭게 돌아온 뉴 QM6를 경험하기 위해 지난 11일 경기도 가평 청리움을 출발해 대성리 E1 LPG충전소를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8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뉴 QM6의 첫 인상은 전면 그릴 부분의 변화다. 전면부 그릴이 메시(Mesh)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태풍 로고를 가운데로 두고 양쪽으로 펼쳐진 '퀀텀 윈'(Quantum Wing)은 날렵한 인상을 줬다. 출시와 함께 소비자에게 호평받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한층 젊어졌다.

실내 공간도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담아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모던 브라운 가죽시트는 밝은 톤의 가죽이 실내를 덮고 센터 터널 손잡이에도 적용해 탑승자에게 안락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 동급 유일의 프레임리스 룸 미러는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든다. 프레임이 없는 룸 미러는 산뜻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뿐 아니라 후방 시야를 한층 넓혀주며, 심카드 형태의 후방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행 성능은 부드러웠다.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자 차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주행했는데 부드러움과 정숙성이 인상적이었다.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일상 주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뉴 QM6 GDe는 중형 SUV 유일의 2.0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모델로, 리터당 12.0km의 동급 최고 연비를 기록한다. 144마력의 출력과 20.4kg·m에 이르는 토크로 안락한 일상주행을 구현한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뉴 QM6의 가격은 2.0가솔린 모델 2474만~3324만원으로 같은 세그먼트의 경쟁모델 대비 500만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무인지게차·물류로봇 등 공유 LGU+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경기반월시화단지 사업자 선정  
산단 내 입주기업, 공동으로 활용

LG유플러스는 하나로TNS, 신세계건설, 보우시스템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경기반월시화단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물류플랫폼은 산업단지 내 물류 자원을 입주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물류체계다. 지금까지 물류 관리를 위해 기업별로 모 든 설비를 갖췄던 것과 달리 창고, 무인지게차, 물류로봇 등을 공유해 비용과 효율을 높이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물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공동 창고에서 비어 있는 공간을 앱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물품은 무인지게차·물류로봇 등 공동 설비를 활용해 자동으로 운반할 수 있다. 결제 또한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된다.

이번 사업은 4개사가 2022년까지 경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5G 기업전용망 및 5G 무인지게차, 물류 로봇 실증을 맡고, 하나로TNS는 물류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세계건설은 물류로봇 공급 및 관련 시스템 구현, 보우시스템은 자동화 설비 구축을 담당한다.

4개사는 먼저 입주 기업이 보유한 물류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내 물류정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유휴 자원을 파악해 실시간 현황 정보를 제공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전경. /LG유플러스

할 예정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단의 입주 기업인 현대합성공업, 프론태, 대모엔지니어링과의 컨설팅을 통해 각 설비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공동 물류센터에 5G 전용망, 무인지게차, 물류로봇 등 첨단 ICT 시설을 도입 및 실증도 진행한다. 초고속·초저지연 5G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설비의 무인 자율주행, 통합관제 등을 구현한다.

아울러 입주 공장도 물류플랫폼을 연계해 생산·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공급망 관리(SCM)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신규 입주 기업들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직접적인 설비 도입이나 운영 없이 산업단지에 구축된 '공유 자원'을 대여해서 사용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